

2020 Winter Vol.9

# 인천 119스토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안전뉴스

고잔동 인천 리사이클링 화재진압  
용현동 빌라 화재현장 초등학생 형제 구조활동  
산곡동 캠프마켓 행사장 전광판 전도 구조활동  
동춘동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진압

## 똑똑똑

계양소방서에는  
마스크를 쓰고 달리는  
소방차가 있다

## 미디어체크

웹툰 <1초>를 보고  
대원분들께 물어요



표지모델  
미추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 김한일 소방사  
ISSN  
2671-5333



인천소방본부

# Contents

2020 Winter Vol.9



어느 가을 날,  
붉게 물든 계양산을 다녀오다



소방관을 가르치는 소방관,  
수난구조의 달인 김태연 소방관을  
만나다.



봉사는 누군가에 희망을 주는 일이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발행인 인천소방본부장 김영중  
 발행일 2021년 1월 4일  
 발행처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190  
 전화 032) 870-3075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119>  
 ISSN 2671-5333  
 기획편집 박성석, 김성남, 이경철, 유지연, 변태우  
 번역검수 (주)캣스테크  
 디자인·기획·편집 (주)착한넷  
 070-7092-0999 <https://chakan.net>

- 04 안전뉴스 .....  
 고잔동 인천 리사이클링 화재진압  
 용현동 빌라 화재현장 초등학생 형제 구조활동  
 산곡동 캠프마켓 행사장 전광판 전도 구조활동  
 동춘동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진압
- 08 똑똑똑 .....  
 계양소방서에는 마스크를 쓰고 달리는 소방차가 있다
- 12 인천소방이야기 .....  
 어느 가을 날, 붉게 물든 계양산을 다녀오다  
 소방관을 가르치는 소방관, 수난구조의 달인 김태연 소방관을 만나다.  
 짹짹 짹 짹 살아나라, 살아나라!  
 봉사는 누군가에 희망을 주는 일이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 24 우리지금만나! .....  
 중심을 잃지 않는 소방관이 되겠다는 다짐, 소방사 김한일
- 28 마인드테라피 .....  
 2020 겨울의 마인드테라피 <포드 v 페라리>
- 30 생활 속 소방 .....  
 방심하면 큰일, 꼼꼼히 살펴요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 수칙
- 32 미디어체크 .....  
 웹툰<1초>를 보고 대원분들께 물어요! PART 4
- 36 시민이야기 .....  
 나이팅게일과 함께하는 응급처치 영상 제작에 참가하며...
- 40 함께하는 소방 .....  
 유치원 등 「불나면 대피먼저」 챌린지
- 41 안전카툰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기
- 42 칭찬합니다 .....  
 칭찬합니다






The Namdong industrial complex is  
lighted up

## 남동공단 상공이 환해지다.



### 안전뉴스 1. 고잔동 인천 리사이클링 화재진압

2020년 9월 13일 저녁 8시 20분경.

깜깜한 남동공단 상공이 환해지고 그 일대는 밤인데도 검은 연기가 가득 보였다. 고잔동에 위치한 인천 리사이클링이라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난 불이 원인이었다. 이 불은 1시간 20여 분이 지나도 사그라들 줄을 몰랐고 곧이어 대응 1단계가 발령되었다. 화학구조대와 무인방수탐차 등 특수차량이 투입되었고 160여 명의 소방관과 80여 대의 소방차량이 불을 진압하였다.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다가 9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다. 오랜 시간 만큼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명피해 : 없음

재산피해 : 254,372천 원

(부동산 199,922천 원, 동산 54,450천 원)

소방력: 장비 86대(소방 66, 타 기관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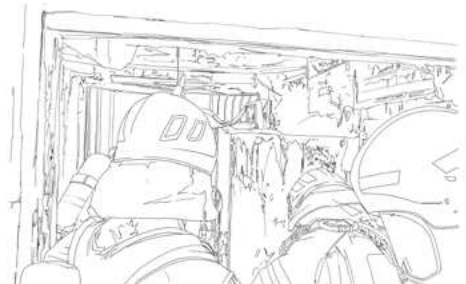
인원 232명(소방 160, 경찰 24, 의소대 30, 타 기관 18)



Rescue efforts for safety  
elementary school brothers at the  
Yonghyeon-dong

용현동


## 초등학생 형제 구조활동



안전뉴스 2. 용현동 빌라 화재현장 초등학생 형제  
구조활동

2020년 9월 14일 오전 11시경.

용현동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초등학생 형제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불은 순식간에 집 전체를 태웠고 그 연기로 한치 눈앞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기에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침대 위에 형을 먼저 구조했고 연이어 침대 옆에 있는 동생을 구조했다. 다행히도 숨은 쉬고 있었지만, 형은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동생은 많은 연기를 마셔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형제는 구급차에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

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조 한 달여 후인 10월 21일, 둘째 아이가 끝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고였다. 

인명피해 : 2명(중상 2명)

재산피해 : 13,000천 원

(부동산 8,000천 원, 동산 5,000천 원)

소방력: 인원 38명(소방 62, 경찰 6),

장비 22대(소방차 17대, 기타 5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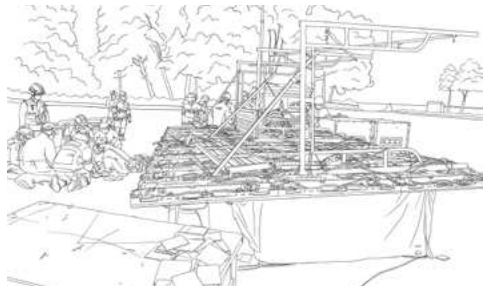




Rescue efforts for safety  
at the Bupyeong Camp Market venue

부평 캠프마켓 행사장


## 안전사고 구조활동



안전뉴스 3. 산곡동 캠프마켓 행사장 전광판 전도  
구조활동

2020년 10월 14일 오후 1시 29분.

부평구 산곡동 미군기지 내 캠프마켓 개방을 축하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오랜 시간 금단의 땅이었던 곳을 개방한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이 모였다. 사고는 행사가 끝난 후 발생하였다. 행사장 내 전광판이 넘어지면서 앞에서 휴식을 취하던 시민들이 깔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현장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여러 대의 구급차가 출동하여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시행되었

고 인근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되었다. 이 사고로 6명이 중, 경상을 입었으나 다행히도 행사가 종료된 상황으로 더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명피해 : 6명(중상 1명, 경상 5명)  
소방력 : 인원 72명(소방 52, 경찰 20),  
장비 24대(소방 15, 타 기관 9)



Another black smoke blocked  
over the Namdong Industrial Complex


## 또 다시 남동공단 상공에 검은 연기가 자욱해지다



### 안전뉴스 4. 동춘동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진압

2020년 10월 28일 오후 1시 55분.

또 다시 남동공단 상공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찼다. 검은 연기는 미추홀구 주안동에서도 보일 정도로 심했고 신고전화 폭주로 119종합상황실은 한때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이 불은 고물상에서 절단 작업 중에 불티가 옮겨붙어 발생하였고 고물상에 쌓여 있던 집기류가 타면서 많은 연기가 오랜 시간 계속 발생하였다. 계속되는 연기로 인근 아파트 주민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내부의 컨테이너 1동이 다 타는 등 3,5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고물상 화재는 완전히 꺼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대원들의 휴식을 위해 중앙구조본부의 재난회복 차량이 출동하였다. 낮부터 늦은 밤까지 잡히지 않는 불로 직원들이 현장에서 교대하며 진압을 벌인 끝에, 10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인명피해 : 1명(경상 1명)

재산피해 : 3,500천 원(동산 3,500천 원)

소방력 : 인원 175명(소방 132, 의소대 30, 기타 13),

장비 47대(소방 37대, 타 기관 10대)

그림\_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 소방교 이병화



## 계양소방서에는 마스크를 쓰고 달리는 소방차가 있다

There is a fire truck running with wearing a mask  
in Geyang Fire Station

인터뷰이 : 계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이준규

사진 : 여혜민 / 인터뷰 : 조덕현 / 글 : 김지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지 1년이다. 2020년의 막바지인 12월 현재, 행정과 직원 부터 현장출동 대원까지 소방서 청사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소방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일상불란하게 움직이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은 어느 소방서에나 있지만, 여기에 더해 계양소방서에는 시민들과 소방공무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기분 좋게 독려하는 특별한 친구가 있다. 바로, 차고 앞에서 흰색 대형 마스크를 쓴 채 위풍당당히 서 있는 새빨간 소방차다. 지나가던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 발길을 멈추게 만든다는 계양소방서의 '마스크 쓴 소방차'는 소방행정과 이준규 소방위의 아이디어로 탄생했다. 그에게서 대형 마스크 제작 스토리와 코로나19로 소방에 찾아온 변화를 들어볼 수 있었다.





## Interview

**안녕하세요, 이준규 소방위님. 여름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홍보 아이디어로 고민이 많으셨다고요.**

8월 말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실내에서 일하는 직원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왔어요. 계양구에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기 때문에 1층 현장부서의 구급대원분들이 코로나 의심환자 관련으로 출동을 자주 나가셨는데, 행정부서에서도 코로나 대응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른 건 아니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며 주변을 살폈죠.

**소방차에 대형 마스크를 부착한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 구조대 차고는 공간이 협소해서 구조공작차를 밖에 빼두는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를 안고 구조공작차에 관해 설명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아마 저 말고도 소방공무원들 대부분 아이들이 소방차 앞에서 신기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아이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딱, ‘타깃을 아이들로 잡아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첫째, 어린아이는 코로나가 무엇인지,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라서 경각심이 없다 보니 마스크를 쓰려 하지 않는구나. 둘째, 아이들은 새빨간고 커다란 소방차를 좋아하니까 이 흥미를 잘 활용하면 마스크 착용을 재미있게 유도하고 코로나를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안성맞춤인 아이디어 같아요.**

소방차에 메시지를 담는다면 분명 아이들이 반응할 거라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대형 마스크만 부착하려고 했는데 타깃이 아이들이니까 눈도 붙였습니다.(웃음) 아이들은 소방차를 살아있는 로봇처럼 대하거든요.

1차로 텐탈마스크 도안을 저희가 직접 그렸는데요,

좀 더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수차례 수정 끝에 마스크의 주름과 귀에 거는 줄까지 구현했어요. 마스크에 들어가는 문구는 서장님께서 직접 생각해 넣어주셨고요. 완성까지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작 도안들이 남아있나요?**

네, 다 가지고 있어요. 일러스트 프로그램처럼 대단한 것으로 그린 게 아니고, 파워포인트로 아주 조약하게 도안을 그렸어요.(웃음) 다행히 실물로 구현해주시는 업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좋은 품질로 나왔어요.

**기획력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혹시 소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기획이나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일하셨나요?**

아니요, 소방공무원이 첫 직업입니다.(웃음) 다만 전공이 언론정보학이라 주어진 환경에서 좋은 콘텐츠를 뽑아내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언젠가는 이 기술을 회사에서 써먹어야지 했는데 소방서에서 활용하게 되었네요.

**소방공무원이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남동소방서에서 마쳤어요. 의무경찰처럼 소방서에서 군 복무를 하는 제도가 따로 있거든요. 그때 흥미와 적성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소방 일이





적성에 맞고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2학년 1학기에 휴학하고 군대를 다녀왔는데, 전역 후 시험을 쳐서 합격했어요. 그리고는 2학년 2학기 수업부터 복학해서 대략 3년 정도 소방서에 출근하면서 학교를 같이 다녔죠.

#### 마스크 쓴 소방차를 실물로 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사실 처음 제작할 때는 주변 반응이 미지근해서 직원들에게 특별히 알리지 않은 채 딱 한 장만 만들었어요. 혹여 직원들 업무에 방해가 될까 봐 최대한 조용히 도안을 제작했고 업체로부터 완성품을 받았을 때도 제가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소방차에 부착했어요. 현장출동 직원분들은 신기해하시고 많이 웃으셨죠. 차고 문을 열어둔 채 커다란 마스크를 소방차에 설치하고 있으려니까 지나가던 시민분들도 서서 구경하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인터넷에서 ‘계양소방서의 마스크 쓴 소방차’ 관련 게시글을 흔히 찾을 수 있어요.

저도 시민분들 반응을 보기 위해 구글링으로 모니터링 했는데, 블로그나 SNS에 제법 올라와 있더라고요. 계양산 등산객분들이 귀엽다고 사진을 촬영해서 올리신 것도 있고, 언론사에서 나온 보도자료도 꽤 있어요. 아!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도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카테고리가 ‘유머게시판’이더라고요.(웃음) 대형 마스크가 배기구를 막으면 어떡하냐는 댓글도 있었는데, 공기가 투과되는 재질이라 괜찮다고 답글을

달고 싶지만 너무 티 날까 봐 못 달았어요.(웃음) 어쨌든 여기저기서 반응이 있는 것 같아 기뻐요.

#### 첫 대형 마스크를 제작한 이후, 마스크를 추가로 제작하신 적 있나요?

네. 2주 전쯤 강원도의 어느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인터넷 기사로 계양소방서의 마스크 쓴 소방차를 봤는데, 우리 소방서 소방차에도 대형 마스크를 부착하고 싶다’고 하셨죠. 흔쾌히 자료를 보내드렸더니 오늘 아침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비슷한 듯 또 다른 매력의 마스크 쓴 소방차가 탄생했더라고요. 이후로도 추가로 3장 더 제작해서 지금은 청사별로 하나씩 설치했어요. 좋게 생각해주시는구나 싶어서 뿌듯했죠.

#### 계산119안전센터의 소방차에 가장 먼저 대형 마스크를 부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제 초임지가 계산119안전센터였는데 그쪽 주변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처에 유치원과 학교, 국민체육공원도 있어서 어린아이부터 젊은 부부, 어르신들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홍보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 좋은 아이디어 덕에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소방차에 마스크를 부착해 놓은 것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대형 마스크를 설치한 계산119안전센터에서는 아침 8시 반과 오후 5시 반에 30분 동안 차고 밖으로 모든 소방차를 빼놓고 근무자들 간 교대하는 교대점검을 실시해요. 그땐

소방차가 인도까지 나오게 되고 출근과 퇴근, 등하  
곳길에 지나가던 시민분들이 아주 가까워서 소방  
차를 보게 되거든요. 잠시나마 웃음도 짓고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죠.


또, 저희 소방공무원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역  
할도 해내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도 실내에서 근무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게 쉽진 않아요.  
특히 현장 출동을 나가는 직원분들은 일반 마  
스크가 아닌 방역 마스크를 별도로 착용하시기 때  
문에, 사무실에서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번거  
롭고 갑갑하거든요. 그런데 소방의 마스크트라 할  
수 있는 소방차가 커다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다  
지나가던 시민분들이 흥미를 느끼고 들여다보니까  
갑갑하더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더라고요.  
소방차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마스  
크를 안 쓰면 이상하니까요.

**구급대원분들은 출동 시 반드시 보호복을 착용하는  
등, 코로나19로 소방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  
었어요. 소방행정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는 활동에 강제적으로 제약  
이 생기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소방교육과 훈  
련 등이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소방서 내부  
에서도 직원들이 모이는 직장교육이나 회의, 캠페  
인 등의 행사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회식이나 체  
육 활동은 물론이고 식사 시간에도 거리를 둡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마냥 불편했는데, 지금 생각

해보니 그동안 우리가 행정업무의 영역을 대면 활  
동에만 의지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되돌아보게  
됐어요. 실제로 해보니 모이거나 만나지 않고도 가  
능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앞으로는 민원처리 시  
스템에서도 직접 대면하는 방식 대신 시간과 예산  
을 모두 절약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보면 어떨  
까 해요. 지금은 비상시국에 준하여 이런 조치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전 같은 생활  
로 돌아가더라도, 행정 시스템에서 비효율적이었  
던 부분을 이번 계기로 개선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  
인 기대도 합니다.

**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시민분들께 전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출동에 나서며 우리 대원  
분들이 무척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  
로나가 종식되어 저 소방차에 씌워둔 마스크를 제  
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역설적  
으로 지금은 정말 꼼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소방관이자 시민의 마  
음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 어느 가을 날, 붉게 물든 계양산을 다녀오다

One autumn day, travel to  
the Red-tinged Gyeyang Mountain

글\_미추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최병열





2020년의 시작이 엇그제 같은데,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쌀쌀한 계절이 다가왔다. 1월에 있었던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근무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하루하루 걱정만 앞서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그 업무들이 익숙해져 있는 나를 발견한다. 이번 한 해 참 바쁘게 살았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 해가 허무하게 지나갔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곤 했다.

바빴던 한 주도 끝나고 주말이 다가왔다. 나는 주로 주말이나 비번 날에 집 근처에 있는 계양산에 자주 간다. 기본적으로 등산을 좋아하여 멀리 위치한 산에 갈 시간이 없으면 주로 계양산에 가곤 했지만, 코로나와 이유모를 귀찮음 들로 인해 점점 집에 누워 빈둥대는 시간이 많아졌다. 문득 점점 늘어가는 몸을 보면서 더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고, 오랜만에 불긋불긋 붉게 물든 단풍을 보러 계양산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계양산만 가는 것보다는 천마산과 계양산을 함께 등반함으로써 조금 더 단풍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버스를 타고 서구청 근처에 있는 서곶근린공원으로 향했다. 서곶근린공원을 지나던 와중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불긋불긋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맑은 하늘 아래 햇살이 비추고 그 아래 펼쳐진 공원 속의 나무들은 1년 만에 방문하는 나를 반겨주는 듯했다. 천마산과 계양산에 펼쳐질 단풍들이 기대되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서둘러 나서기 시작했다.

사실 계양산은 설악산이나 내장산 등의 화려하고 유명한 산들에 비해 특출나지는 않지만 바쁜 일상에서 부담 없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 능선에 올라가자 나무 사이로 울긋불긋한 풍경이 펼쳐졌다. 느긋하게 풍경을 감상하며, 오랜만에 한 운동으로 숨이 가빠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어느덧 천마산 정상 정자에 도착해 물로 목을 축이고 풍경들을 감상하며 초코바를 먹었다. 맑은 하늘과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이 더욱 더 풍경들을 멋있게 꾸미고 있었고, 그 풍경들을 보니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다. 천마산 정상을 지나 중구봉을찍고 쪽 내리막길로 내려 징매이고개 생태 터널로 내려와 본격적으로 계양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징매이고개 생태 터널에서 계양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매우 가파르다. 길지는 않지만 대략 30분간 이어지는 이 길은 오를 때마다 매우 힘들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쯤 계양산 정상에 도착했다. 주말 계양산 정상은 늘 사람이 많다.

맑은 날씨에 저 멀리에 있는 북한산도 보이니 날을 참 잘 골랐다고 생각했다. 얼마 만에 보는 맑은 날씨인지. 조금 더 풍경을 즐기고 싶지만, 안전을 위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하산했다. 



Meet Kim Tae-yeon, a firefighter  
who teaches firefighters, and an expert rescue at sea.

## 소방관을 가르치는 소방관, 수난구조의 달인 김태연 소방관을 만나다.

글\_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 소방장 김소연  
인터뷰\_중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김태연

올해 1월, 매서운 한파에 움짱달짝하기 싫은 날이었고, 뻗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로 든든하게 입고 나선 점퍼도 소용없던 날.

얼음이 동동 떠 있는 인천소방학교 야외훈련장에서는 추위와는 상관없는 듯, 소방관들의 동계수난구조 훈련이 한창이었다. 중부소방서 119구조대 대원들 사이에서 후배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김태연 소방장을 처음으로 만났다.

구조대 3개 부가 훈련하는 3일 내내 수난구조 교관을 자처한, 소방관을 가르치는 소방관. 그의 이야기가 궁금해, 직접 구조대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부소방서 119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김태연입니다. 2003년 6월에 공채로 입사해서 18년간 구조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수난구조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특수부대 전역하신 줄 알았어요.**

보통 수난 구조하면 UDT, SSU와 같은 해군 출신이 많습니다. 저는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고 공채로 입사했는데 첫 발령지가 계양소방서 119구조대였어요.

구조대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전까지는 수영도 못했거든요(웃음). 그래서 수영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인천 소방에 있는 스쿠버 동호회에 가입하고, 단계별로 스쿠버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니 강사 자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강사 자격을 받을 때 즈음 레저 다이빙이 아닌 테크니컬 다이빙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걸 계기로 더욱 잠수에 빠지게 됐습니다.

**Q. 테크니컬 다이빙(텍 다이빙)은 생소합니다. 일반 다이빙과 많이 다른가요?**

표준화된 분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이빙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이고 최상위 코스를 끝내더라도 최대 수심이 40m로 제한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기존 다이빙의 수심과 잠수 시간을 넘어서는 심해 잠수와 동굴 다이빙, 난파선 다이빙과 같은 특수한 장소의 고난도 잠수를 칭합니다. 그래서 장비고 일반적인 싱글 실린더 스쿠버 다이빙보다 4배 이상이라, 그 장비들을 달고 육상에서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Q. 스쿠버다이빙은 비싼 레저스포츠라고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배우신 건가요?**

네,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웃음). 바로 인천소방학교 김영기 팀장님이신데요. 전국에서 다이빙으로 유명하시고 테크니컬 다이빙도 초창기에 시작하셨어요. 그분도 외부에서 사비로 배운 본인 기술을 직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Q. 직원들 다이빙 교육을 꽤 오랫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한창 다이빙을 하던 시기부터 여기 중부소방서 119구조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당시 수난 구조 출동이 자주 있었어요. 월미도 앞바다에 사람이 빠지거나 인천항 내에 선원들이 빠지는 사고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이라고 해서 수난구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잠수도 전문기술이나 지식 없이 하면 구조대원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 더 가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은 부에 근무하는 직원들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Q. 수난구조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말씀해주세요.**

가장 두려운 것은 생명의 위험이죠. 동료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정말 다이빙을 잘하던 직원들이었는데...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그 당시 몸 상태가 중요한데, 구조라는 게 언제나 본인 컨디션만 생각하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구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신을 찾는 일이다 보니 심적인 힘들이가 큼니다.

**Q. 앞으로 수난구조대원으로서의 목표가 있다면요?**

저는 이제 다이빙은 그만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이가 드니까 겁도 많아지고 몸이 힘들어요. 탱크 무게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장비도 많이 팔았어요(웃음). 하지만 직원들 교육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도전은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천 바다와 하천을 아우르고 있는 만큼 수난구조를 위한 장비나 직원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 잠수 교육은 개인적으로 받기에는 비용이나 근무 일정 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타 시도에서 지원하는 수난구조대원 교육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중스쿠터(DPV)’ 라던가 ‘더블 탱크 안전 충전함’과 같은 특수장비들이 전체 구조대에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대원들은 순환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실제 수난구조가 없는 지역이라도 평소에 장비에 관해 공부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실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훈련과 장비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이 안전하려면 저희도 안전해야 하니까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꺾꺾꺾꺾 살아나라, 살아나라!

Alive, alive, please.

글\_공단소방서 소래119안전센터 소방장 김대현



구급대원으로서 첫 겨울을 맞은 나는 많이 지쳐 있었다. 도시 외곽의 센터 관할에는 낡은 주택과 빌라가 많았다. 주로 저소득층, 특히 노인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평소 지병이 있던 사람들이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 119구급대를 찾는 일이 늘고 있었다. 그중에는 심정지 환자도 많았다. 그 겨울, 열 건이 넘는 출동에서 단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했다. 혼자 살던 주민이 며칠 후에 주검으로 발견되기도 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이도 아침에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손쓸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았다.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죽음에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갑자기 늘어난 경험은 낯설고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또다시 출동 벨이 울렸다.

“삐익 삐익! 구급출동, 구급출동! 심정지 환자 발생. 급비발!”

구급차 액셀을 힘껏 밟아 차고를 나오면서 입으로 한숨이 피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아, 또 봐야 하는 건가...’

4분 만에 도착한 빌라 지하층에 여남은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을 뚫고 거실로 들어가니 거대한 몸집의 청년이 옷통을 벗은 채 누워 있고, 그 주위를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여자들은 입을 꼭 다물고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남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하며 누워있는 친구의 가슴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일어나. 눈 뜨라고! 제발!”

환자에게 다가가 활력 징후를 체크했다. 호흡, 맥박이 없었다. 체온도 낮았다. 친구들은 밤새 술을 마시다 새벽녘에 하나둘 잠이 들었고, 아침에 깨어나 보니 환자가 거실에 누워있었다고 말했다. 119에 신고 후 상황에서 시킨 대로 응급조치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했다.

비관적인 상황이었다. 즉시 심장 압박을 시작했다. 그 겨울에 있었던 다른 많은 사망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일단 메뉴얼대로 처치를 한다. 비록 사망이 의심 또는 확실된다고 해도 구급대원이 행동을 취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니까.

때로는 사망한 지 한참 지난 환자의 위장에 남아있던 음식물과 피가 뿜어져 나와 온몸에 뒤집어쓰는 일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한 채 현장에 있을 수는 없다. 무엇이랄도 해야 했다.

병풍처럼 둘러선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어느새 통곡으로 변한 그들의 울음소리에 떠밀려 나는 기



계적으로 가슴 압박을 계속했다. 10분, 20분 시간이 흐르면서 온몸에 이상한 열기가 피어올랐다. 나도 모르게 맞잡은 두 손에 힘이 들어가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짹짹 짹 살아나라, 살아나라. 짹짹 짹 살아나라, 살아나라’ 주위를 둘러싼 통곡과 희한한 열기에 휩싸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몇 번이고 가슴이 터져라고 소리를 질렀다.

“짹짹 짹 살아나라, 살아나라!”

기적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어야 했다.

파트너가 교대하자며 내 손을 잡았다. 잠시 압박을 멈추고 제세동기의 리듬 분석을 기다렸다.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섯 번 넘게 이루어진 분석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보았다. 미세한 파동이 움찔, 떨리는 것을. 즉시 제세동을 시행했다. 모양은 불안하지만 확실한 산이 파동으로 나타났다. 신이 난 우리는 교대로 심장 압박을 계속했다.

어느새 팔에서 흘러내린 땀이 손등을 적서 포개 놓은 두 손이 자꾸 미끄러졌다. 피로가 누적된 팔 근육이 덜덜 떨렸다.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다. ‘기운이 빠져나갈수록 더 정확하고 단단하게 자세를 잡아야 해. 오늘 이 생명은 살릴 수 있겠어!’

“샷!” 다시 전기 충격이 가해졌다. 남자의 몸이 움찔했다. 리듬 분석이 재차 시작됐다.

“띠 이루루르, 띠 이루.” 촘촘하고 높은 파동. 심실세동이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2주기를 더 실시했다. 그리고 다시 리듬을 분석했을 때, “띠 띵, 띵 띵.” 드디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구급차에서 들 것을 가져왔다. 빌라 출입구에 고정된 후 환자를 담요 위에 옮겨 네 귀퉁이를 잡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계단을 올랐다. 덩치가 큰 남자였기에 힘에 부쳤다. 간신히 들 것 위에 환자를 놓았는데 구급차까지 가는 일이 또 문제였다. 골목길에 차가 들어올 수 없어 30여 미터 떨어진 골목 입구에 세워 둔 터였다. 더구나 눈이 많이 쌓여 들것을 움직이기 쉽지가 않았다. 그때, 친구들이 달려왔다.

“우리가 들게요. 빨리 가요. 구급차 어디 있어요? 빨리요. 제 친구 살려야죠!”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맨발로 우리 앞에 섰다. 그리고는 철제 들것을 솜이불을 들 듯 가뿐하게 어깨높이로 들더니 눈길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군데군데 병판이 섞여 있는 골목길을 그 옛날 스파르타의 전사들이 평야를 달리듯 우르르 순식간에 내달렸다.

그 옛날 스파르타의 전사들이 평야를 달리듯 우르르 순식간에 내달렸다. 하얀 눈 위에 두터운 발과 앙증맞은 발가락들이 어지럽게 찍혔다. 분출하는 청춘의 생명력이 질주하고 있었다. 🏃‍♂️





## 봉사는 누군가에 희망을 주는 일이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Voluntary Service is about giving hope to someone, and what anyone can do

글\_강화소방서 강화119안전센터 소방교 조경욱

우리는 흔히 봉사는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베푸는 시혜쯤으로 여깁니다. 저는 사실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봉사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어느 날 밤, 깜깜한 골목길을 걷던 사람이 앞쪽에서 등을 밝히고 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걷던 사람은, 통명스럽게 “아니,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왜 불을 밝히고 다니느냐?” 물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은 “내가 보기 위해서 불을 밝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보고 와서 부딪힐까봐 그러합니다.” 라고 했다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이보다는 나은 위치임은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무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곧 봉사이고, 그는 곧 자신을 위한 일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저는 2009년 소방에 입문하여 제 직업이 가지고 있는 ‘희생’의 이미지만으로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봉사라고 생각했지만, 이를 넘어 쉬는 날에도 조금 더 사회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수차례 하기도 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방문하여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기도 했으며, 아직도 연탄으로 난방하는 소외 계층을 위한 연탄나눔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근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부터는 바쁜 업무를 핑계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새해가 들어서 저는 비교적 시간의 여유가 있는 외근 부서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시금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다짐을 하였고, 그 다짐의 시작으로 지난 1월 '선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온도 1도 올리기'라는 연탄봉사활동에 지원해 참여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는 중계동 백사마을이라는 곳이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봉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봉사했던 60여 명의 봉사자 중에서는 우리가 TV 매체를 통해서나 볼 수 있었던 연예인들도 많았습니다. 각자 업무를 나눠 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소외된 가구마다 연탄 200장씩 나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얼굴과 손에 연탄 가루가 묻어 얼굴이 검어지고 힘든 일이었지만 정말 누구 하나 힘든 내색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약 2,000장의 연탄을 날랐습니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봉사자들의 얼굴은 다들 너무 밝은 표정이었고, 저 역시 일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급식 봉사활동도 신청하여 매주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타인에게 베푸는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곧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천과 나눔으로 더욱더 따뜻한 대한민국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안전! 





Commitment to be a firefighter  
who is determined not to lose the right path,  
fireman Kim Han-il.

## 중심을 잃지 않는 소방관이 되겠다는 다짐, 소방사 김한일

인터뷰이 : 미추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  
소방사 김한일  
사진 : 여혜민  
인터뷰 : 조덕현  
글 : 김지현



“안녕하세요! 미추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31살 김한일 소방관입니다.” 나이까지 일러주는 각 잡힌 자기소개에 젊은 기강이 느껴진다. 작년에 소방관으로 임용된 김한일 소방사는 올 한 해, ‘소방사’가 겪기 힘든 어려운 일을 여러 차례 겪어내며 많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땀 듯이 기뻐던 순간도, 가슴이 우그러지듯 미어지는 순간도 더러 있었다. 그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건 용현동 빌라에 사는 어린 형제에게 닥쳤던 화재 사고다. 김한일 소방사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중상을 입은 아이 둘을 그보다 더 뜨거운 집념으로 구조해냈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형제가 눈을 뜨길 기도하며 기사를 확인했다. 그는 소방관이 된 이상 앞으로도 눈물과 웃음이 끝없이 교차할 거라는 걸 이제는 안다고 말한다. 다만, 오늘도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중심을 놓치지 않는 소방관이 되겠다 다짐한다.

Q. 안녕하세요, 김한일 소방사님. 인천119스토리 겨울호 독자분들께 간단히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추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한일 소방관입니다. 임용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고 용현119안전센터가 첫 근무지인데, 주로 용현동 관내의 화재, 구급, 구조 관련 현장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된 건 알고 있었는데, 표지모델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Q. 오늘 사진 많이 찍으셔야 할 거예요.(웃음) 왜 소방관이 되셨는지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어요. 중학생 시절에 부모님께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는데 위험한 직업으로 생각하시곤 반대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 저도 꿈을 접고, 나중엔 취업이 잘 된다는 누나 말을 따라 물리치료학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물리치료사로 1년 정도 일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며 행복한가? 평생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답이 나왔고, 물리치료사 일을 그만뒀죠. 이후 짧은 기간 해외여행을 다니던 중 어릴 적 꿈이 소방관이었다는 게 불현듯 생각나더라고. 그 길로 한국에 돌아와서 소방시험을 준비했고 어렸을 적 꿈처럼 소방관이 되었어요.

Q. 실제 화재현장은 소방관이 되기 전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첫 화재출동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새벽에 야간업무를 하던 중 주택가에서 난 화재로 출동했거든요. 눈 바로 앞 1센티미터도 보이지 않고, 공기호흡기에서 공기가 칙칙 거

리는 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첫 출동이였기 때문에 앞에 가는 선임대원분 어깨를 잡고 따라가서 수관을 잡아드리는 역할만 했었는데, 직접 겪어보니 그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소방관이 되기 전 상상 속에서는 멋지게 불도 끄고 사람도 구했는데 막상 실제 현장에 가니 모든 임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했어요. 정신적으론 두려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지만, 육체적으론 이 공간 안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기도 했죠.

Q. 상상만으로도 땀이 나네요. 이제 소방관으로 일하신 지 1년이 조금 넘으셨다고 하셨지요. 요즘은 어떠세요?

지금껏 한 달에 두어 번 정도는 큰불로 인한 출동이 있었고, 또 작고 큰 사고로 인한 출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배웠어요. 요즘은 지시를 받은 직후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곧바로 선명히 그려져요. 이제 현장출동에 적응되었다 한들 계속 단련해야겠지만요.

Q. 지난 9월 14일, 어른이 없는 빌라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화재로 중상을 입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죠. 당시 화재현장에서 김한일 소방사님께서 아이들을 구조하셨다고 들어요.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그 즉시 차고의 셔터들이 올라가고 소방차가 나와요. 제가 그날 밖에서 업무를 보고 있느라 출동 소리를 못 들었는데, 셔터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소방차에 올라타면서 바로 장비를 착용했어요. 저희 용현119안전센터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전 주에는 연막





소독이나 음식물 타는 냄새를 오인한 신고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별일 아닐걸 속으로 바랐었는데, 같이 올라탄 대원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화재 현장에 도착해 위를 봤는데 연기가 엄청났죠.

**Q. 실례되지 않는다면 현장 상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수관을 잡은 1경방을 뒤에서 보조하는 2경방 역할을 해요. 그날도 1경방 대원분과 함께 현장에 올라갔는데 이미 현관문이 열려있었고 불길 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현관쪽 불을 먼저 끄기 위해 “방수해주세요!” 하고 외치고 불을 끄려고 했을 때, 아래에 있던 시민들이 ‘안에 아이가 있다’고 소리치셨죠. 1경방 대원분께서는 불 끄려던 걸 멈추고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셨고 저도 뒤따랐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열심히 손을 움직였어요. 더듬거리던 손끝에 뭐가 걸렸는데, 침대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곧바로 침대 속에 손을 넣었더니 무언가가 잡혔어요. 그 짧은 순간, 제가 잡은 이게 차라리 인형이길 바랐어요. 이런 상황에 이런 곳에 숨어있었다면 무사하기 힘들거예요. 플래시를 비춰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아이를

들어 올려 등을 두드리면서 나왔어요. 1층에 대기 중인 구급대 안에 정신을 잃은 아이를 인계한 후, 또다시 현장으로 올라갔어요.

**Q. 네, 동료 소방관 두 분께서도 계속 인명 수색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첫째를 구급대에 인계하는 동안 계속 인명수색을 진행해주셨어요. 제가 다시 현장에 간 후부터는 다른 팀들이 불을 끄고 있었고, 덕분에 저희는 인명검색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께서 계속 소리치셨어요. “한 번 더 확인해! 한 번 더! 침대나 바닥이나 장롱, 전부 보라고!” 혹시 깔려있을까 봐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어 올려도 보고 여기저기 살살이 뒤지던 중 다른 1경방 대원분께서 “한 명 더 있다!” 소리치셨어요. 얼른 다가가서 침대랑 붙어있는 책상을 치워내고 플래시를 비춰보니 그 아래 조그마한 공간에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쌓여있는 이불, 매트릭스를 집어 던지고 아이를 안아 다시 1층 구급대로 뛰어 내려갔어요. 이 아이도 의식이 없어서 등을 두드렸죠.

두 아이를 구급차에 인계한 후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두 아이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Q.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교육이 더 활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날 사고 현장에 다녀온 이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도 예쁜 조카가 있고... 감정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말씀처럼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불이 나면 본인이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도망쳐 나온 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불이 나면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따로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다행히 요즘은 소방에서 어린이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저희 때보다 소방안전 콘텐츠를 접할 기회도 훨씬 열려있어요. 다만,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기사를 보니 화재가 발생했던 빌라와 같은 이름의 빌라가 저희 관내에만 몇 곳 있었더라고요. 종합상황실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면 마찬가지로 신고자가 정확한 주소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 또 작은 불일 경우엔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큰불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죠.

Q. 네. 인천소방에서도 이미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재 시 대피 체험 및 119신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인터뷰하신 소감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기사를 확인했었어요. 그날(9월 14일 빌라화재) 구조했던 아이들이 깨어났는지, 몸이 회복되고 있는지. 그러다 두 아이 모두 의식이 돌아왔다는 기사가 난 날 너무 기뻐서 콧노래를 불렀는데, 며칠 후 결국 둘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형처럼 둘째도 건강을 되찾았다면 정말 기뻐서 텐데... 인터뷰를 하고 표지모델이 되는 건 의미 있는 일이지만, 아직은 가엾은 둘째가 생각나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요.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굼직한 화재로 출동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주변 선배 대원분들께서 저한테 '소방사가 겪기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다'고 말씀하곤 하세요. 출동이 잦은 것도, 이번 소식지에 제가 표지모델로 선정된 것도, 모두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안일한 마음 없이, 늘 스스로 발전하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 2019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포드 v 페라리

개봉: 2019. 12. 04.

등급: 12세 관람가

장르: 액션, 드라마

국가: 미국

리닝타임: 152분

배급: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 2020 겨울의 마인드테라피 <포드 v 페라리>

Winter 2020 Mind Therapy  
<Pod v Ferrari>

글: 김지현  
사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요즘, 방구석에만 있으려니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 발끝이 간질거린다. 하지만 뭐 어찌리,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아도 모두를 위해서 조금만 더 동면해보자. 인천119스토리 겨울호 '마인드테라피'에서는 사회활동을 대폭 줄인 착한 집순이 집돌이를 위한 대리만족 영화를 소개한다. 경쾌한 속도감으로 짜릿한 전율을 선사할 영화 <포드 v 페라리>가 그 주인공이다. 자동차 생산 기업 포드사와 페라리사의 잘빠진 레이싱카를 구경하는 시각적 만족감에 더해, 불가능을 온몸으로 즐기는 두 남자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뜻밖의 감동까지 선물할 것이다.

© 2019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줄거리

1960년대, 매출 감소에 빠진 포드사는 판매 활로를 찾기 위해 스포츠카 레이스를 장악한 절대적 1위 페라리사와의 인수 합병을 추진한다. 막대한 자금력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실패하고 ‘엔초 페라리’로부터 모욕까지 당한 헨리 포드 2세는 ‘르망 24시간 레이스’에서 페라리를 박살 낼 차를 만들 것을 지시한다. 세계 3대 자동차 레이스 대회이자 ‘지옥의 레이스’로 불리는 르망 24시간 레이스. 출전 경험조차 없는 포드사는 대회 6연패를 차지한 ‘페라리’에 대항하기 위해 르망 레이스 우승자 출신 자동차 디자이너 ‘캐롤 셀비(맷 데이먼)’를 고용하고, 그는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지만 열정과 실력만큼은 최고인 레이스 ‘켄 마일스(크리스찬 베일)’를 자신의 파트너로 영입한다. 포드의 경영진은 제멋대로인 켄 마일스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레이스를 펼치기를 강요하지만 두 사람은 어떤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불가능을 뛰어넘기 위한 질주를 시작한다.

## 관람 포인트

### ✓ 그 어떤 각본보다 놀라운 실화!

<포드 v 페라리>의 자동차 디자이너 ‘캐롤 셀비’와 레이스 ‘켄 마일스’는 모두 실존인물로, 영화는 모터스포츠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만남을 다뤘다.


### ✓ 맷 데이먼과 크리스찬 베일, 완벽한 캐스팅

민고 보는 연기파 배우가 나란히 등장한다. 이 중 레이스 역활의 ‘크리스찬 베일’은 전문 카레이서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후 레이스 장면을 직접 소화해냈다.

### ✓ 긴 상영시간, 그러나 체감은 레이스 속도처럼 빠르고 짧다!

상영시간이 무려 2시간 32분이다. 어차피 밖으로 나갈 일 없는 요즘, 영화 한 편으로 지루한 시간을 의미 있게 지나 보낼 수 있다. 영화를 끝난 후 ‘이게 2시간 32분이었어?’ 하고 오히려 놀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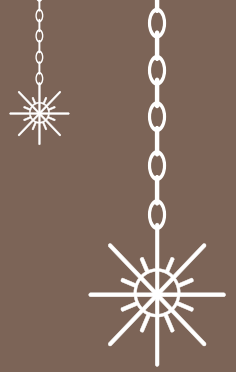
### ✓ 수많은 관중과 함성, 질주하는 레이싱카로부터 오는 진율!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레이싱 장면만 옥여넣는 고루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두 주인공의 서사를 촘촘히 쌓아올려 마침내 터트리는 한 방이 곳곳에 있다. 



© 2019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방심하면 큰일, 꼼꼼히 살펴요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 수칙

If you are not careful & in big trouble,  
check carefully the winter fire prevention safety rule.

인포그래픽\_강우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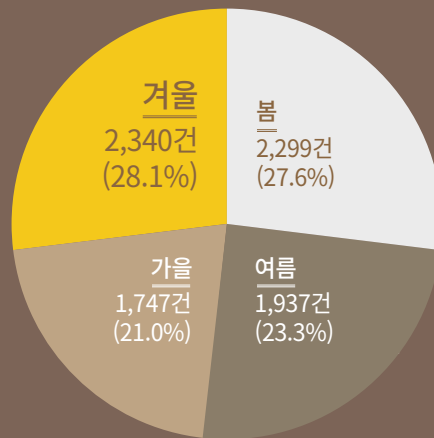
추위를 피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각종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겨울철에는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 '설' 마'가 '아차' 되는 일이 한순간. 겨울철 화재 사고 현황과 안전 수칙을 인포그래픽으로 소개한다. 주변을 꼼꼼히 살펴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자.

.....

## 지난 5년간 계절별 화재 발생현황

참고자료 출처\_인천소방본부

→ 지난 5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총 2,340건으로 계절 중 가장 많았다. 인명 피해 역시 134명으로 겨울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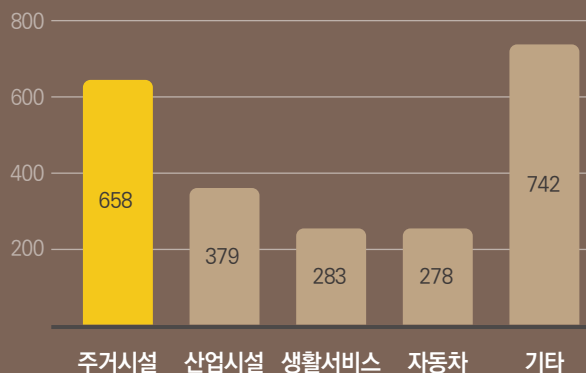


.....

## 장소별 겨울철 화재 발생 현황

참고자료 출처\_인천소방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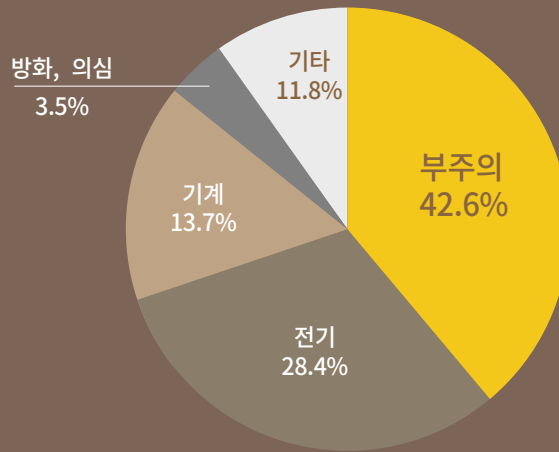
오른쪽 그래프는 지난 5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장소별 화재 발생 현황이다. '기타' 항목을 제외 하면 주거시설 내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

## 원인별 겨울철 화재 발생 현황

참고자료 출처\_인천소방본부



위 그래프는 지난 5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원인별 화재 발생 현황이다. 전기, 기계 작동 오류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

##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수칙

참고자료 출처\_인천소방본부

- |    |                                |     |                                |
|----|--------------------------------|-----|--------------------------------|
| 첫째 | 난방기구 올바른 사용법 숙지 및 사전점검 실시      | 넷째  | 가스 사용 시 환기 및 중간밸브 차단 등         |
| 둘째 | 멀티탭 사용 금지 및 외출 시 전원 차단         |     | 가스안전수칙 준수                      |
| 셋째 | 불연재로 구획된 공간에 화목보일러 설치 및 소화기 비치 | 다섯째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설치 및 작동유무 확인 |



## 웹툰

# <1초>를 보고 대원분들께 물어요! PART 4

Watch the webtoon <1 Second>  
and ask the crew! PART 4

## 〈작도 소방서 2팀〉

“<1초>는 제목처럼 찰나를 다투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담은 네이버 웹툰이다. 주인공 ‘호수’가 새내기 교육생으로 소방학교에 들어선 때부터 모두가 존경하는 전설의 소방관으로 불리기까지의 긴박감 넘치는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재미와 감동은 물론 소방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실제 소방직에 근무하는 이들도 감탄하며 즐겨본다는 <1초>! 이번호에선 이 웹툰을 보며 생긴 궁금증을 현지 대원분들께 직접 물어보았다.”

글\_조해인

## 〈소방대원들의 직급에 대하여〉

-75화 중-

주인공 호수가 근무하는 작도 소방서에 최보람, 최성덕 새로운 소방교가 투입되었다.



Q. 소방공무원의 직급을 나누는 기준과 각 직급의 권한이나 하는 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직급을 나누는 기준은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권한과 역할, 책임도가 비슷한 직위입니다.

직급들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경은 센터장으로 진압, 구조 등 현장활동을 지휘, 감독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합니다. 소방위는 부팀장으로 센터장을 보조하며 1개 팀의 현장활동과 행정업무 등을 관리합니다.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은 3개 팀으로 나누어 소방정보 수집 및 예방순찰, 소방검사, 민원업무 처리 등 행정업무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현장활동을 시행합니다.





〈 구조대 확대 편성 〉  
-77화 중-

주인공 호수가 요구조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팀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무전 연락을 취하고 있다.



Q. 구조대 확대 편성 시 지원 자격이 있을까요?

A. 구조대원 자격 기준은 인명 구조사 교육 이수자, 인명 구조사 자격증 취득자, 구조 관련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인자, 응급구조사 자격자로 구조업무 교육 이수자입니다. 여기서 확대편성이란 소방대원 인력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Q. 지원자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특별한 테스트는 없습니다.



### <출동의 종류> - 7화 중 -

작도 소방서에서 소방 화재 예방 목적을 위해 출동한다.



Q. 화재 현장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목적으로 출동할  
하기도 하나요? 그럼 예방 목적의 출동을 하는  
기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A. 소방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평상시 관내 소방대상  
물에 대한 구조·현황 등 파악과 화재진압 훈련을 시행  
합니다.



Q. 예방 목적으로 출동했을 시, 하는 활동에 대해  
궁금합니다.

A. 화재예방을 위해 대상물 검사, 관내 소방순찰, 소방  
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출동로 확보 등을 실시합  
니다.

### <실종수색 시 경찰의 합류> - 8화 중 -

실종 수색이 진행되던 도중 경찰과 합류하려는 연  
락을 취한다.



Q. 실종 수색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 경찰이 합류하게  
되나요?

A. 모든 실종 수색 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  
과 함께 활동합니다.



Q. 실종 수색은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나요?

A. 산악, 수난 실종 등 다양한 실종 수색이 있으며,  
사전정보 수집, 구조여건, 수색방법, 장비 등을 판단  
하여 구조대원들에게 임무부여 후 수색하게 됩니다.



### 〈 환자한테 먹살을 잡힐 경우 〉 -84화 중-

주인공 호수는 실종 구조 중 왜 자신을 살렸냐며 환자한테 먹살을 잡히게 되었다.



Q. 구조 중 환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A. 구조활동 중에는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구급대원들이 현장활동 시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주로 술 취한 사람들에게 의한 폭행으로 구조활동보단 구급활동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Q. 그럴 경우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나요?

A. 경찰에 도움 요청하고 추후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이 무관용 원칙의거 엄정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 〈 의용소방대에 관하여 〉 -85화 중-

의용소방대분들이 작도 소방서를 방문했다.



Q. 의용소방대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되시나요?

A.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신체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또는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 선발합니다. 따라서 신체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인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가능합니다.



Q. 의용소방대원이 하는 일은 어떠한 게 있을까요?

A. 의용소방대 임무는 기본적으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 보조입니다. 그 외의 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6.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7.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코로나 19 예방 방역활동

\* 바쁘신 와중에 정성껏 답변 주신 대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방위 유지연, 소방위 배수환, 소방위 최윤수, 소방장 심만우



# 나이트िंगей일과 함께하는 응급처치 영상 제작에 참가하며...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of  
first aid videos with Nightingale...

글\_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서은빈

안녕하세요. 이번 '나이트िंगей일과 함께하는 응급처치' 대회에서  
END 팀으로 참가한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서은빈이라고 합니다.

현재 3학년인 저는 원래대로였다면 이맘때 즈음에는 병원 실습을 나가 있었을 테지만, 아쉽게도 코로나 19로 인해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가 하루 중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다 보니 공허한 마음이 들어 이것저것 취미도 가져보고 책도 읽어봤지만 그리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는 대로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중 우연히 학교 홈페이지에서 '나이트िंगей일과 함께하는 응급처치 영상물 제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본 날이 신청 마감일이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친한 동기 2명과 함께 3인 팀을 꾸려 마감 직전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 일상에 깊이 권태를 느끼고 있었고, 요즘 같은 시기에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만 생각했던 저에게 가장 먼저 펼쳐진 모습은 수많은 참가자였습니다. 무려 17팀이 참가했는데 그중 저희 팀처럼 소수 인원의 팀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결원이 생겨 참가가 불투명해진 다른 팀에서 한 명을 영입해왔지만, 4명만으로는 많은 부분에서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얼떨떨함을 느낄 새도 없이 설명회를 통해 이 대회가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는 것을 느꼈고, 팀원들과 당혹감을 내비쳤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진지한 대회라면 정말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는 영상물 제작을 완료한 시점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맞는 내용을 구상하고 담아낼 이야기를 만들고, 만들어진 이야기를 영상으로 구현해 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오롯이 우리들의 판단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 흥미로우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생기는 일들이었습니다. 함께하는 팀원 4명 중 2명이 지방에 있는 본가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촬영을 위해 고속버스나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



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모였을 때 많은 분량을 해결해야 해서 저희 팀에게는 밤샘 촬영은 기본 옵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팀원들의 넘치는 의욕 덕분에 밤샘 촬영이나 새벽 회의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의욕으로 인해 마치 연극 영화와 학생들이 촬영할 법한 높은 수준의 시나리오를 구상해 냈고, 결국 서로의 로봇 연기를 인내해가며 촬영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문제는 연기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짜임새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으로 팀원은 4명인데 등장인물은 6명 이상인 사태가 발생했고, 이때 만큼은 왜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을 모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팀원들과 친한 지인 2명을 섭외하여 우정 출연을 부탁하게 되었는데, 밤샘 촬영이 기본인 팀인지라 지인들도 함께 밤을 새우는 미안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 두 친구에게 팀원 모두가 고마운 마음과 함께 한 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입상 여부를 떠나 저는 참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올해를 되돌아보면 영상을 제작하는 기간만큼 이렇게 들뜨고, 바쁘게 생활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촬영을 완료한 장면이더라도 편집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보이면 2차, 3차, 4차에 걸친 추가 촬영까지도 마다치 않는 열정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간호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실습 한 번을 못 가봤다는 슬픔과 이전과는 다른 대학 생활로 인해 학업 부문에서도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열의를 가지고 응급처치에 관해 탐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상당히 큰 재정비 시간을 갖게 해준 것 같습니다.

유독 운이 좋게도 저희 팀에게 이번 경연대회는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중에서도 YTN 촬영은 앞으로 살면서도 쉽게 하기 힘든 경험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YTN 촬영 전까지만 하더라도 팀원들 모두 연기가 익숙하지 않아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현장에 계시던 기자님들께서 크게 호응을 해주셔서 팀원들이 이 경험을 계기로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처음 방문

한 안전체험관에서 TV에서만 보던 지진 체험을 실제로 해본다며 팀원들이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대원분께 요청드려 소방 복장을 빌려 입고 촬영을 진행했는데, 그 당시의 활동하고 있는 제 모습이 신문 기사에까지 실리게 되어 매우 신기했습니다. 지금도 그 날 찍었던 영상들을 다시 볼 때면, 굉장히 힘든 하루였지만 정말 재미있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교육 영상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영상을 떠올리기 쉬웠는데, 직접 제작해보니 선입견이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유쾌하게 풀어낸 영상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러한 영상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회에 참여하는 기간 내내 우리가 만든 이 영상으로 누군가가 응급처치에 대해 배울 수도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응급 처치와 응급 구조 등에 관해서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가볍게 시작해서 가볍게 임하다가 흐지부지 종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결코 가볍게 임하기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찾아왔고, 어쩌면 그 덕분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지루했던 한 해였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경연대회에 즐겁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제작을 마치고 시원한 감정  
과 아쉬운 감정이 교차하는 지금, 이렇게 활동  
전체를 되돌아보며 마무리를 맺을 기회를 주  
셔서 모든 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



# 유치원 등 「불나면 대피먼저」 챌린지

Relay challenge, first to evacuated, when it is on fire.

화재 시 피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과 함께 챌린지라는 재미있는 방식을 도입하여 홍보·교육을 추진합니다.

- 기간 2020년 11월 ~ 2021년 2월
- 참가대상 소방서별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 📱 챌린지 참여방법



EXIT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기

## Fire fighting facility supply for housing

글\_그림\_공단소방서 노현119안전센터 소방교 이병화

## 시민들은 모르는 소방서 이야기

6화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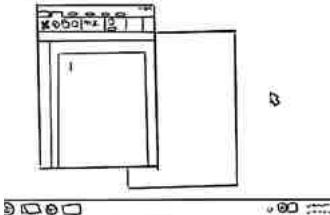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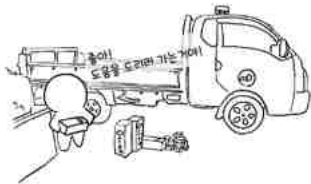


인천-계양소방서

2020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보급문서가 왔다.

2020년 어느 날..  
나는 어느날처럼 업무를 보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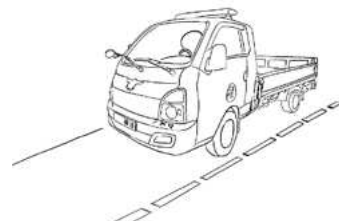
나는 관련 문서를 우리서에 맞게 개작하고.

보급 대상자 시민 한분 한분에게 전화통 걸며,  
설치해드릴 날짜를 잡았다.드디어!  
올해도 시작되는구나!우리 소방서 화물차에 시민분들께 나눠드릴  
소화기와 감지기들 하나둘씩 창고에서나는 집에 들어가서 거실 천장에  
감지기를 설치해드렸다.이제 연기를 감지하면  
'비인 비인' 하면서  
불이 났다는 소리들네요안녕하세요!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시민분들을 향해 출발했다.

감지기를 설치한 후,  
소화기도 드렸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으로~

출발한지 10분여만에  
첫번째 시민분께 도착했다.여기구나!  
자 들어가볼까?그렇게 첫번째 시민분께 감지기와 소화기를 드렸고,  
나는 10분의 시민분들께 방문한 뒤, 다시 서로 복귀했다.

2020년 계양구 관내 1,056가구에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보급하였으며,  
매년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있다.

기획, 제작 : 공단소방서 노현119안전센터

소방교 이병화

협조 :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 칭찬합시다



## 1 “9월 25일 19시 18분경 출동해주신 남동소방서 대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한슬기  
소방관 : 남동소방서 담방119안전센터 소방위 윤병무, 소방위  
이영근, 소방장 홍승환, 소방장 서준광, 소방사 이충만

빌라에 화재로 의심되는 탄 냄새가 진동하여 119 신고접수 하였고, 다행히 화재는 아니었지만 신속한 출동과 대응으로 원인을 파악해주셔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남동소방서 대원분들 감사드립니다!

## 2 “강화119산악구조대 반세용, 황성환, 최석원 구조대원분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경원  
소방관 : 강화소방서 119산악구조대 소방위 반세용, 소방장 황성환,  
소방사 최석원

강화 석모도 해명산 등산 후 하산 중에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상태에서 날까지 저물어 산속 어둠 속에 고립되어 있을 때 119에 연락을 하였고, 세 분의 구조대원들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철쭉 같은 어둠 속에서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구조대원분들의 친절함과 신속한 구조 노력 덕분에 별 탈 없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이번 일로 인해 119구조대원분들에 대한 친절함과 더불어 든든함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네요. 다시 한 번 고생하신 강화119산악구조대 반세용, 황성환, 최석원 구조대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3 “9월 26일 저녁 8시경 산곡 현대3차아파트 출동하신 소방관님 감사합니다”

작성자 : 송현민  
소방관 : 부평소방서 갈산119안전센터 소방위 고재성, 소방사 최민수,  
소방사 김민규 산곡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은석,  
소방교 김대성

9월26일 저녁8시경 산곡현대3차아파트 내 테니스코트에서 심정지를 일으켰던 환자의 친구입니다. 119에서 성모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로 제 친구는 수술 잘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성모병원으로 이송 후에는 음료수도 받지 않으시고 근무하시는 모습에 감사하고 든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4 “119 응급 구조 대원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작성자 : 강인철  
소방관 : 공단소방서 동촌119안전센터 소방장 전태호,  
소방교 조경훈, 소방사 강형구

안녕하세요. 10월 5일 AM 4:00쯤에 ‘인천 연수구 만우금로 251번길 50-13 (3층)’ 으로 출동해주신 응급 대원분들에게 감사인사 드리고 싶어 글 남깁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셔서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었는데 빠르게 출동해주신 대원분들 덕분에 지금은 잘 검사 받으시고 아무 문제 없이 퇴원하셨습니다. 대부분 자고 있을 시간에도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 매일 대기 해주시는 대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감사인사가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 5 “응급환자 대처 관련 감사의 말씀”

작성자 : 김용민  
소방관 : 영종소방서 운서119안전센터 소방장 하규탁,  
소방교 정원철, 소방사 김보라

지난 9월 21일 16시경 우리 회사(인천공항에너지) 응급환자 발생 시 운서119안전센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응급환자가 신속히 이송되어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퇴원하여 다시 근무하고 있었음에 센터 및 대원분들(하규탁 소방장님, 정원철 소방교님, 김보라 소방사님)의 신속한 대응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6 “인천서부소방서 이재명 소방관님을 칭찬합니다!!!”

작성자 : 임종석  
소방관 :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재명

인천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 주임 이재명 소방관님

저희는 화물자동차를 취급하는 운수회사이며 특히 석유류를 운송하는 탱크로리 차량의 이전이 잦은 편입니다. 탱크로리 차량이 이전해서 들어오게 되면 신규든 지위승계든 차량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인지 소방관님이 일일이 확인을 하시는 것이죠.

검사일정을 잡고 엄격한 검사를 받고 나면 비로소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아서 차량에 비치하고 운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데 차주님들은 대개 이 완공검사필증을 급하게 받고 싶어 합니다. 소방관님도 검사 후에 서류 작업할 시간이 필요할 텐데 말입니다. 바로 운송을 시작하려면 어쩔 수 없이 완공검사필증이 필요하니까요.

이럴 때 이재명 주임님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소방관님과 대화 중에 들은 사실인데요, 아직 잠에서 깨기도 전인 꼭두새벽에 소방서에 출근해서 전날까지 검사한 차량 결재서류를 준비하고 결재를 받아 저희가 조금이라도 빨리 완공검사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공식적인 처리기한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운수회사와 차주님들의 급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부지런히 서둘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애써주심을 잘 알고 있기에 평소에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연히 인천소방본부 ‘칭찬합시다.’ 사이트를 알게 되어서 잘 되었다 싶어 이 글을 남깁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어쩌다 한두 번은 일찍 출근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 주임님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 출근을 마다치 않으시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 현장에서 진화를 위해 애쓰시는 소방관님들도 고맙지만, 평소 민원인들의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 이재명 주임님 역시 이에 못지않은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주임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주)동보운수 드림

소방관님들의  
가치수고는  
수많은 가족을  
구해주시고  
우게합니다  
힘내세요

